

# 18대 국회 이념적 변화의 특징\*

가 상 준 | 단국대학교

본 연구는 18대 국회의원과 17대 국회의원 이념을 정당별로 비교함으로써 이념적 변화 근원지를 알아봄, 의원 개인 이념은 안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지 분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이념이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 모두 보수화되었는지 살피고, 이념적 변화 근원지를 알아보기 위해 17대 국회의원과 18대 국회의원들의 이념을 지역별, 선수별, 그리고 선출방식별로 비교해 본다. 분석결과 18대 국회의 보수화는 모든 정당에서 일어난 것이라기보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수도권 의원들의 이념은 매우 크게 변화하였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한나라당의 보수화는 초선의원들뿐만 아니라 재선의원들의 이념 변화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 및 국회 이념에 대한 연구는 국회의 정책결정 방향을 예견하고 국회 내 정당 간 갈등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아직 국회 및 국회의원 이념에 대한 연구 수행은 미진한 편이다. 의회의 성격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알아보는 데 있어 이념은 무엇보다 기본적인 자료와 의미를 제공하여 주기에 이념의 측정 및 분석에 대한 노력이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18대 국회, 17대 국회, 이념, 보수화, 한나라당, 민주당

## I. 서론

17대 국회와 비교하여 18대 국회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이념의 보수화다. 17대 국회는 진보적 색채를 띤 다수의 열린우리당 의원과 민주노동당 의원의 국회 진출로 인해 과거 어느 국회보다 진보적 성향을 보였다. 이에 비해 18대 국회는 보수 색채를 띤 의원들의 국회 입성이 특징으로 17대 국회에 비교해 매우 보수적 의회로 평가받고 있다. 18대 국회가

---

\* 이 연구는 2009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원 연구보조장학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17대 국회에 비해 보수적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고 말하지만 보수화가 어떠한 성격을 띠고 일어났는지, 즉 국회 전반에 걸쳐 일어난 현상인지 아니면 특정 정당에 한정되어 나타난 현상인지 보여주는 연구는 없다. 또한, 18대 국회의 보수화는 특정 지역 의원들에 의해 나타난 현상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일어난 현상인지 알 수 없으며, 18대 국회의 이념적 변화는 국회에 새로 입성한 초선들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재선에 성공한 의원들의 이념 변화에 의해 나타난 현상인지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이념에 대해 심도 있게 접근하려는 방법과 노력이 부족했고 정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대 국회부터 국회의 특징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이념 설문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회 및 정당의 이념적 변화를 파악하여 방향과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국회 및 국회의원 이념에 대한 연구는 국회의 정책결정 방향 그리고 정당 간 이념성향 및 갈등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7대 국회의 진보 성향과 18대 국회의 보수 성향은 국회의 입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예견해 주었다. 국회의원 이념에 대한 연구는 이념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념 변화의 근원지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18대 국회의 경우 국회의 보수화가 국회의원 전반에 영향을 미쳐 나타난 현상인지 아니면, 특정 정당에 국한되어서 나타난 현상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자의 경우는 국회의 전반적 이념 변화라 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국회의 이념 양극화와 관련이 크다. 국회의 이념적 변화가 국회의원 전반에 영향을 미쳐 나타났다면 모든 정당에서 보수적 색채를 띤 의원들이 주로 당선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특정 정당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라면 해당 정당의 이념적 변화는 크게 나타나게 되나 다른 정당들의 이념적 변화는 거의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 이념에 대한 연구는 의원들의 이념이 안정성을 띠는지 아니면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의원들에 대한 이념 측정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이념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이념이 안정적인지 아니면 개인적 신념이 변화하듯이 이념도 변화하는 것인지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이에 대한 결과는 18대 국회의 보수화가 17대 국회에 비해 매우 달라진 정치적 상황 속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들의 이념적 변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보수 의원의 총원에 기인하여 18대 국회 보수화가 나타난 것인지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18대 국회의원과 17대 국회의원 이념을 정당별로 비교함으로써 이념적 변화 근원지를 알아보고, 의원 개인 이념은 안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지 분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이념이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 모두 보수화되었는지 살피고, 이념적 변화 근원지를 알아보기 위해 17대 국회의원과 18대 국회의원들의 이념을 지역별, 선수별, 그리고 선출방식별로 비교해 본다. 의원들의 이념 변화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17대 국회의원과 18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두 번 모두 응한 의원들의 이념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18대 국회의원들의 이념은 17대 국회의원 이념과 비교하여 어떠한 상이성과 유사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당, 지역, 의정경험 등을 중심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해 본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이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피고 국회별 차이에 대해 비교 검토해 본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이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피고 제3장에서는 이념의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고찰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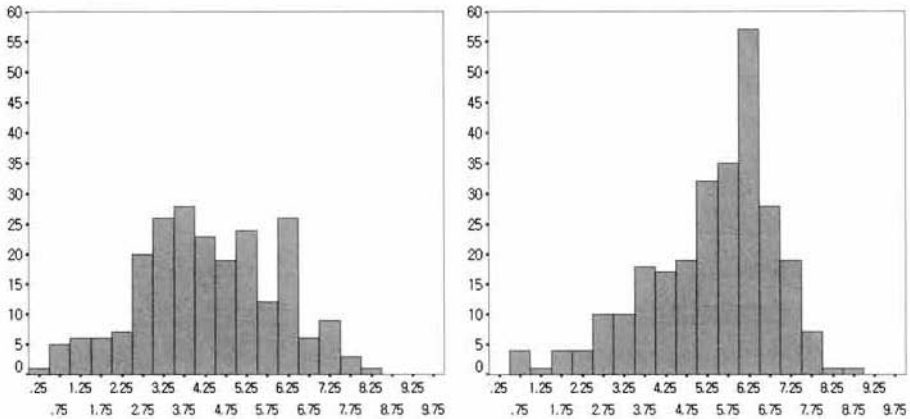
## II. 의원 이념에 대한 선행연구

국회 및 국회의원의 이념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의원들의 이념을 통해 법안 표결(이현우 2005a, 2005b; 전진영 2006, 2009), 이념성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김민전 2008), 상임위원회 배정(가상준 2007, 2009a)을 분석한 것이다. 의회정치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의원들의 이념을 통해 상임위원회 배정의 특징을 살피고 있다(Hall and Grofman 1990; Hurwitz et al. 2001; Gilligan and Krehbiel 1990; Krehbiel 1990, 1991). 지역구 이익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상임위원회 배정에 있어 동일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국외자들(outliers)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살피고 의원들의 평균 이념을 본회의의 평균 이념과 비교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Hall and Grofman 1990; Hurwitz et al. 2001).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상임위원회의 기본적인 그리고 규범적 역할에 강조하는 학자들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이념에 상이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Gilligan and Krehbiel 1990; Krehbiel 1990, 1991).

의원들의 이념에 대한 연구에 있어 주를 이루는 것은 이념이 본회의 표결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피는 것이다(이현우 2005a, 2005b; 전진영 2006, 2009; Jackson and Kingdon 1992; Kalt and Zupan 1984, 1990; Kingdon 1989; Krehbiel 1991, 1995, 1998; Levitt 1996). 의원들의 이념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법안에 대한 표결에 있어 의원들은 그들의 신념과 선호도에 따라 투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법안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의원들의 이념 외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같은 다른 요인과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전진영 2006; Jackson and Kingdon 1992), 한편 의원들의 이념을 지역구의 사회·경제적 특징 변수로 이해하며 설명하기도 한다(Kalt and Zupan 1990). 특히, 이념을 강조하는 학자들과 의원들의 표결에 있어 소속 정당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연구들(가상준 2009b; 이현우 2005a, 2005b; 전진영 2006, 2009; Aldrich 1995; Binder et al. 1999; Cox and McCubbins 1993; Cox and Poole 2002; Jackson and King 1989; Snyder and Groseclose 2000)과의 논의는 측정과 분석에 있어 다양성과 타당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 90년대 이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의회 내 정당 간 양극화에 대한 연구는 이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Abramowitz and Saunders 1998; Bartels 2000; Fleisher and Bond 2000a, 2004). 양극화에 대한 연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정당 간 의원들의 평균 이념으로 이들의 차이가 어떠한 모습을 띠는지 살핀다. 이를 통해 양극화의 원인(Abramowitz and Saunders 1998; Bartels 2000; Hill and Rae 2000; Jacobson 1996; Owens 1997; Rohde 1991), 양상(Burden 2004; Fleisher and Bond 2004; Roberts and Smith 2003), 결과(Binder 1999; Covington and Barga 2004; Fleisher and Bond 2000b; Jones 2001)를 분석함으로써 미국 의회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다.

양극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의원들 중 소속 정당의 평균 이념과 상당한 차이를 둔 의원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Fleisher and Bond 2004; Hetherington 2001; Jones 2001; Layman and Carsey 2002). 의원들 중 이념이 소속정당 평균 이념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을 경우 특히 다른 정당 방향으로, 이들은 정당지도부 및 기타 영향 등으로 의회에서 자취를 감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원들의 이념 변화와 관련되어 미국의 남부의 변화를 관측하는 연구가 활발하다(Black 1998; Hill and Rae 2000; Jacobson 2000; Roberts and Smith 2003; Whitby and Gilliam Jr. 1991). 1960년대 논쟁적 법안이었던 투표권리법(the Voting Right Act of 1965) 이후 남부의 보수적 지역구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여 민주당 대신 공화당 의원으로 교체되었으며, 반면 남부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에 비해 진보적 성향을



〈그림 1〉 17대 국회/18대 국회 이념 분포도<sup>1)</sup>

떠며 변화하고 있다. 이는 지역구 의원들의 이념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연구로 원인과 양태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원들의 이념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의원들의 정당별 혹은 상임위원회 평균 이념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회의 양극화 및 상임위원회 간 차이를 검정하고 있다. 의원 이념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법안 표결과 관련되어 수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념의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한편 미국 남부의 변화와 같이 지역구 의원들의 이념 변화에 관심을 갖고 조명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의회의 변화를 정당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무엇보다 의원들이 이념이 어떠한 방향 및 형태로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 III. 통계적 분석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의 이념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이념분포를 살펴보았다.<sup>2)</sup> <그림

- 1) 의원들의 이념점수는 0~10점으로 0에 가까워질수록 강한 진보를 10에 가까워질수록 강한 보수를 의미한다. 왼쪽은 17대 국회 이념 분포도이며 오른쪽은 18대 국회 이념 분포도이다.
- 2) 17대 국회 국회의원들의 이념은 2004년 한국정치학회와 중앙일보가 국회의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표 1〉 정당별 17대 국회의원과 18대 국회의원 이념 비교

구 분	17대 국회	18대 국회	t 값
한나라당	5.378	6.139	-6.177 (p<0.001)
민주당	3.495	3.764	-1.574 (p=0.117)
민주노동당	0.837	0.750	0.437 (p=0.671)
기타 <sup>3)</sup>	5.633	5.745	-0.176 (p=0.861)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8대 국회의원들의 이념 분포도는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데 비해, 17대 국회는 18대 국회에 비해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역대 가장 진보적 국회였다고 말할 수 있는 17대 국회 평균 이념은 4.30으로 18대 국회 평균 이념 5.35와 비교하여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18대 국회 보수화가 이루어진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과연 보수화가 국회의 전반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특정 정당에서만 발생한 현상인지 알아볼 필요가 제기된다. 이를 위해 정당별 국회의원의 이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비교 분석해 보았다. <표 1>은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념 변화다. 18대 국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17대 국회 한나라당 의원들에 비해 강한 보수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이념은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4)</sup> 18대 국회 민주당 의원들이 17대 국회 민주당 및 열린우리당 의원들보다 조금 보수적 성향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한편, 18대 국회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이념은 17대 국회와 비교하여 거의 차이가 없는

통해 얻은 자료다. 2004년 설문조사에 17대 국회의원 299명 중 229명이 응답해 주었다. 18대 국회의원들의 이념은 2008년 한국정치학회와 중앙일보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되었다. 18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299명 중 267명이 응답하였다.

- 3) 17대 국회에서 기타는 무소속과 자민련 의원들이며 18대 국회에서 기타는 무소속,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의원들이다.
- 4) 18대 국회 민주당 의원들은 17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의원(김효석, 이낙연 등)들이 주축이 되고 있기에 18대 국회 민주당 의원들의 이념을 17대 국회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이념과 비교 분석하였다.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18대 국회의 보수화는 주로 한나라당에 의한 것이지만 다른 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sup>5)</sup>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는 17대 대통령선거 결과에서 보여주었던 유권자들의 성향, 즉 노무현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이념적 보수화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보수 성향의 한나라당 후보들이 용이하게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다. 17대 국회는 진보적 성향을 띤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들과 국회 첫 입성에 성공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에 의해 진보적 의회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들과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이념적 차이로 양극화된 의회로 평가받고 있다. 18대 국회의 정당 간 이념적 차이는 더욱 벌어져 17대 국회보다 더 양극화된 의회라 말할 수 있다.

## 1. 한나라당 분석

<표 1>의 결과를 통해 18대 국회의 보수화는 국회 과반수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한나라당의 보수화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7대 국회와 18대 국회 한나라당 의원들을 지역별, 선수별, 그리고 선출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이념 비교를 시도해 보았다.

<표 2>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17대 국회의원과 18대 국회의원의 이념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이를 통해 첫 번째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보수화가 전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18대 국회 서울, 경기/인천, TK, PK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은 17대 국회에 비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보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수도권 의원들의 급격한 보수화를 발견할 수 있다. 18대 국회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의 이념이 비록 TK보다는 덜 보수적이지만, 17대 국회에 비해 상당히 보수화되었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 세 번째 PK 한나라당 의원들의 보수화도 눈에 띈다. 18대 국회 다른 한나라당 의원에 비해 보수성이 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의 이념이 17대 국회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에 비해 더 보수적이었지만 18대 국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네 번째 수도권 한나라당 의원들의 보수화에도 불구하고 17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TK 한나라당 의원들은 가장 보수적 성향을 띤 의원들이며 이들의 이념은 변화하지 않은

5)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과의 관계, 경제시장원칙 영역에 있어 크게 보수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한나라당 17대 국회의원과 18대 국회의원 지역별 이념 비교

구 분	17대 국회	18대 국회	t 값
서울	5.026	6.185	-4.454 (p<0.001)
경기/인천	4.742	6.192	-5.546 (p<0.001)
TK	6.214	6.500	-1.167 (p=0.250)
PK	5.385	5.949	-2.211 (p=0.031)
기타 <sup>6)</sup>	5.350	5.000	0.557 (p=0.593)

〈표 3〉 한나라당 17대 국회의원과 18대 국회의원 선출방식별 이념 비교

구 분	17대 국회	18대 국회	t 값
지역구	5.451	6.150	-5.375 (p<0.001)
비례대표	5.061	6.041	-2.651 (p=0.012)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보수화는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PK도 여기에 가세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TK 의원들의 커다란 이념 변화는 없으나 TK는 한나라당 의원 중 가장 보수적 성향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을 선출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17대 국회의원과 18대 국회의원 이념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해 보았다.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나라당 17대 국회의원에 비해 한나라당 18대 국회의원은 선출방식에 상관없이 모두 보수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7)</sup> 그러나 보수화의 방향은 같으나 정도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더 큰 것으로

6) 여기서 기타는 강원, 제주, 충청, 호남 의원들이다.

7) 17대 국회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이념 비교를 비교해 보면  $t=1.247$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18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념적 동질성이 강한 의원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 한나라당 17대 국회의원과 18대 국회의원 선수별 이념 비교

구 분	17대 국회	18대 국회	t 값
초선	5.188	6.078	-4.984 (p<0.001)
재선	5.555	6.160	-2.890 (p=0.005)
삼선 이상	5.639	6.251	-2.458 (p=0.017)

나타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에 비해 18대 국회에 주로 보수 성향의 인물을 비례대표로 공천하였기 때문이다.<sup>8)</sup>

18대 국회 한나라당 의원들을 선수별로 구분하여 17대 국회와 비교하여 나타나는 차이를 알아보았다. <표 4>를 통해 17대 국회에 비해 달라진 18대 국회 의원들의 이념적 변화를 목격할 수 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념은 선수가 높아질수록 보수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보다 17대 초선 의원들의 이념과 18대 재선 의원들의 이념 비교 그리고 17대 재선 의원들의 이념과 18대 삼선 이상 의원들의 이념 비교를 통해 한나라당 내에서 일고 있는 강한 보수화를 발견할 수 있다.

## 2. 민주당 분석

민주당의 의원들의 이념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역별, 선출방식별, 그리고 선수별로 나누어 17대 국회와 18대 국회 민주당 의원들의 이념을 비교해 보았다. <표 5>는 17대 국회와 18대 국회 민주당 의원들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이념적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민주당 서울 의원들의 이념적 변화다. 17대 국회 민주당 서울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 중 가장 진보적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18대 국회 민주당 서울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 중 가장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서울 의원들의 이념적 성향도 보수 방향으로 크게 변화한 것이다. 이는 최근 발견되고 있는 수도권 보수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비록 경기 및 인천 의원들의 이념 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8) 탄핵정국 속에서 실시된 2004년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던 한나라당의 2008년 비례대표 공천은 과거에 비해 이념을 중시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다.

〈표 5〉 민주당 17대 국회의원과 18대 국회의원 지역별 이념 비교

구 분	17대 국회	18대 국회	t 값
서울	3.100	3.916	-2.158 (p=0.040)
경기/인천	3.393	3.616	-0.646 (p=0.522)
호남	3.878	3.667	0.651 (p=0.519)
기타 <sup>9)</sup>	3.600	3.792	-0.442 (p=0.663)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17대 국회에 비해 18대 국회 경기 및 인천 의원들의 진보 성향은 약화되었다. 이에 비해 호남 의원들의 성향은 좀 더 진보적 성향을 띤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지만 유일하게 진보적 방향으로 변화된 지역이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17대 국회에 비해 18대 국회 민주당 의원들의 이념은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 상이성을 목격할 수 있다. 즉, 수도권 의원들의 성향은 보수화되었지만 호남의원들은 진보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18대 국회 서울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 중 가장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으며 호남 의원들이 가장 진보적 성향을 띠게 되었다. 이는 17대 국회와 비교하여 보면 차이나는 결과라 하겠다.

민주당 의원들을 선출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17대 국회의원과 18대 국회의원을 비교하여 보면 <표 6>의 결과를 얻는다. 17대 국회와 18대 국회 모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념 변화는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18대 국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은 17대 국회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보다 모두 진보 성향이 조금 약해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 18대 국회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17대 국회 민주당 의원들보다 그리고 18대 국회 지역구 의원들보다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민주당 비례대표들의 이념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좀 더 고찰이 필요하다.<sup>10)</sup>

9) 여기서 기타는 영남, 충청, 강원, 제주 의원들이다.

10) 그럼에도 18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들과 지역구 의원들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념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표 6〉 민주당 17대 국회의원과 18대 국회의원 선출방식별 이념 비교

구 분	17대 국회	18대 국회	t 값
지역구	3.456	3.697	-1.344 (p=0.181)
비례대표	3.670	4.075	-0.829 (p=0.413)

〈표 7〉 민주당 17대 국회의원과 18대 국회의원 선수별 이념 비교

구 분	17대 국회	18대 국회	t 값
초선	3.536	4.065	-1.627 (p=0.107)
재선	3.440	3.558	-0.442 (p=0.661)
삼선 이상	3.380	3.804	-1.236 (p=0.225)

17대 국회와 18대 국회 민주당 의원들을 선수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한나라당과 비교되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표 7>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7대 국회와 18대 국회 민주당 초선 의원 간, 재선 의원 간, 삼선 이상 의원 간 이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7대 국회 초선 의원과 18대 국회 재선 의원과의 비교 그리고 17대 국회 재선 의원과 18대 국회 삼선 이상 의원과의 비교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이념은 한나라당 의원들과는 달리 상황적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3. 지역별 이념 변화

위의 결과들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관심을 끄는 것은 수도권 의원들의 변화다. 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수도권 의원들의 이념이 상대적으로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이념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전체 의원들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의 상이성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sup>11)</sup>

11) 여기서 기타는 충청, 강원, 제주 의원들이다.

〈표 8〉 17대 국회의원과 18대 국회의원 지역별 이념 비교

구 분	17대 국회	18대 국회	t 값
서울	3.860	5.874	-7.650 (p<0.001)
경기 / 인천	3.804	5.390	-5.706 (p<0.001)
TK	6.209	6.500	-1.216 (p=0.230)
PK	5.093	5.630	-1.586 (p=0.117)
호남	3.865	3.738	0.419 (p=0.678)
기타 <sup>11)</sup>	4.468	4.686	-0.503 (p=0.618)

<표 8>은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영남과 호남 지역 의원들의 이념은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남 의원들이 조금 보수화되었는데 비해 호남 의원들이 약간 진보화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서울과 경기 및 인천 의원들의 보수화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결과로 특히, 서울 의원들의 이념 변화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이는 17대 국회에 서울 의원들의 이념은 경기 및 인천 의원들의 이념과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18대 국회 들어와 서울 의원들의 보수화는 경기 및 인천 의원들의 보수화보다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sup>12)</sup> 앞서 언급했듯이 수도권 보수화 원인에 대해 많이 논의되고 있으나 특히 서울의 보수화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서울 지역에 대해서는 차별적 설명이 필요하다.

#### 4. 이념의 안정성 검정

국회의원들의 이념적 성향이 안정적인지 아니면 조금씩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17대 국회 설문조사와 18대 국회 설문조사에 모두 응답한 의원들의 이념을 비교 분석해

12) 18대 국회 서울 의원과 경기 및 인천 의원들의 이념을 비교해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t=1.883$  ( $p=0.063$ ) 발견할 수 있다. 반면 17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표 9〉 의원들의 이념성향 변화

구 분	17대 국회	18대 국회	대응표본 t 값
전체	4.662	5.117	-3.733 ( $p < 0.001$ )

〈표 10〉 정당별 이념성향 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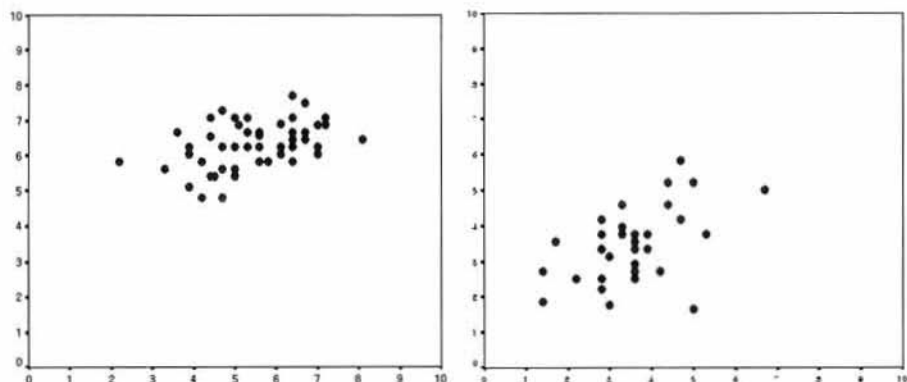
구 분	N	17대 국회	18대 국회	대응표본 t 값
한나라당	55	5.432	6.274	-5.945 ( $p < 0.001$ )
민주당	32	3.518	3.446	0.377 ( $p = 0.709$ )

보았다.<sup>13)</sup> 17대 국회와 18대 국회를 모두 경험한 의원 중 두 번의 설문조사에 모두 응답한 의원은 9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념이 변화하기보다는 안정적이라면 이들의 이념점수는 두 번의 조사에서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념이 안정적이라기보다 상황의 변화 및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면 이들의 이념은 두 번 조사에서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들의 이념 및 비교결과를 <표 9>가 보여주고 있는데 17대 국회와 18대 국회 구분하여 살펴보면 이들의 이념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8대 국회에 대한 조사에서 그들의 이념은 17대 국회에 대한 조사에 비해 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개인 이념이 안정적이라기보다는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17대 국회에 비해 18대 국회가 보수화된 것은 보수적 성향의 의원들의 국회 입성과 함께 기존 의원들의 보수화가 동시에 진행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의원들의 이념성향이 두 번째 조사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의원들의 이념적 성향이 상황적 변화 혹은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움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의원들의 이념적 변화가 모든 정당 의원들에게 발생한 현상인지 아니면 특정 정당 의원들에 국한된

13) 17대 국회에 대한 설문문항과 18대 국회에 대한 설문문항은 다르지만 북한과의 관계, 경제시장원칙, 그리고 사회복지 등에 대해 묻는 비슷한 성격을 띠는 문항들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2〉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이념 변화 양상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정당별로 구분하여 이념 성향을 비교해 보았다.<sup>14)</sup> <표 10>은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념은 커다랗게 변화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의 이념은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기존 의원들의 성향이 보수적 의원들의 입성과 함께 같이 변화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2004년에 비해 변화한 정치상황에 대한 반응의 결과라 말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의 이념은 좀 더 진보적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과 대조적 현상이다. 이러한 점이 여당과 야당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이념적 성향에 따른 결과인지 좀 더 통시적 고찰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점이 지속된다면 정당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의 이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림 2>를 통해 보면 뚜렷하게 알 수 있다.<sup>15)</sup>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념은 17대 국회에 비해 보수적 방향으로 변했음을 대부분의 이념들이 일사분면과 이사분면에 위치하여 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17대 국회 진보적 성향을 보였던 의원들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의 의원들에게도 발견되는 현상이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의 이념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삼사분면에 위치한 이념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민주당의 경우 17대 국회 소수의

14) 민주노동당과 기타 정당은 N수가 각각 2와 3으로 나와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

15) 왼쪽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념이며, 오른쪽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념이다. X축은 17대 국회 의원들의 이념이고 Y축은 18대 국회 의원들의 이념이다.

보수 성향 의원들이 18대 국회에 들어 진보적 방향으로 이동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의 설문조사에 응한 의원들의 이념은 안정적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변화하는 성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나타난 결과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의 이념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한나라당 의원들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이념이 안정적인지 아니면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이념 측정과 이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위의 결과들을 토대로 의원들의 이념은 변화 가능성을 보이며, 특히 이러한 점은 보수 성향의 의원들에게서 더욱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 2008년 사회적 분위기와 상황이 2004년보다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이 필요하다. 만약 사회적 분위기와 상황이 진보적으로 변화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 5. 이념 회귀분석

17대 국회와 18대 국회 의원들의 이념은 어떠한 상이성과 유사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또한 관심을 끌고 있는 18대 국회의원들의 이념을 17대 국회의원 조사 결과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18대 국회의원 이념 설명에 있어 가미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첫 번째 회귀분석은 의원들의 연령, 지역 변수, 소속 정당, 선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이념을 설명하는 것이다. <표 II>는 세 개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연령, 민주당, 민주노동당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된다. 이는 평균적으로 의원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념이 보수화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비교하여 나타난 결과로 민주당 의원과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에 비해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서울과 비교하여 다른 지역들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17대 국회와 18대 국회 전부를 대상으로 한 모델에서 TK의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서울과 비교하여 TK 의원들의 이념이 보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TK변수의 영향력은 17대 국회에 대한 모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변수의 영향력은 18대 국회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서울지역 의원들의 보수화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 하겠다. 반면 다른 두 모델과 달리 18대 국회에서 호남과 기타 지역의 영향력을 발견할 수

〈표 11〉 정당/지역에 의한 회귀분석

변수		통합		17대 국회		18대 국회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선수		-0.068	0.050	-0.186*	0.085	0.014	0.057
연령		0.040***	0.007	0.059***	0.010	0.023***	0.009
정당 (한나라당)	민주당	-2.119***	0.120	-1.628***	0.180	-2.163***	0.167
	민주노동당	-4.962***	0.308	-4.257***	0.414	-5.402***	0.425
	기타	-0.239	0.223	-0.210	0.485	-0.317	0.241
지역 (서울)	경기/인천	-0.020	0.152	0.025	0.229	-0.120	0.183
	TK	0.434**	0.198	1.091***	0.305	0.166	0.240
	PK	-0.082	0.173	0.303	0.273	-0.213	0.203
	호남	-0.144	0.206	0.319	0.301	-0.591***	0.266
	기타	-0.266	0.205	0.244	0.300	-0.615***	0.263
	비례대표	-0.048	0.170	-0.037	0.254	0.043	0.216
상수		3.812***	0.343	2.262***	0.511	4.965***	0.420
F값		70.423***		28.958***		45.386***	
수정 R <sup>2</sup>		0.610		0.581		0.647	

\*p&lt;0.1, \*\*p&lt;0.05, \*\*\*p&lt;0.01

있는데 서울의 보수화로 인해 서울지역이 호남과 기타 지역과 차이를 보이면서 나타난 결과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이념은 주로 정당 변수에 의해 설명이 되며 지역 변수의 영향력은 시기적으로 다르나 통합적으로 보았을 때 TK 변수의 영향력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정당 변수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발견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지역 변수의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통시적 고찰이 필요하다.

두 번째 방법은 17대 국회와 18대 국회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으로, 17대 의원들의 이념을 독립변수로 18대 의원들의 이념을 종속변수로 하여 관찰한 것이다. 앞서 <표 9>를 통해 동일한 의원일지라도 17대 국회 이념과 18대 국회 이념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정당 변수와 지역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18대 국회의원들의 이념을 설명해 보았다.<sup>16)</sup> <표 12>는 변수를 달리했을

16) 여기서 정당과 지역은 18대 국회 정당과 지역으로 한나라당과 수도권 가변수다. 앞선 회귀분석과 달리 N수가 적고 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원들이 대상이기에 한나라당 변수만 만들었다.



〈표 12〉 18대 국회의원 이념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1.364***	0.376	1.992***	0.265	1.899***	0.291
17대 이념	0.805***	0.077	0.400***	0.066	0.409***	0.067
한나라당			2.112***	0.208	2.096***	0.210
수도권					0.129	0.167
F 값	110.678***		169.179***		112.488***	
수정 R <sup>2</sup>	0.547		0.787		0.786	

\*p&lt;0.1, \*\*p&lt;0.05, \*\*\*p&lt;0.01

때 나타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8대 국회의원들의 이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 17대 국회의원들의 이념이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변수가 추가되었을 때 18대 국회의원 이념에 대한 설명력은 좀 더 향상됨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18대 국회의원들의 이념을 설명함에 있어 수도권 변수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8대 국회의원의 이념은 17대 국회에 실시된 의원들의 이념과 함께 정당 간 현격한 차이로 인해 정당 변수가 추가될 때 더 잘 설명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의 결과들은 의원들의 이념을 설명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정당 변수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이념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각 국회에 대한 분석에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정당에 따른 이념 차이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당의 영향력은 의원들의 과거 이념을 통해 현재 이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의원의 이념 변화가 정당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두 정당 간 차이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17대 국회에 비교하여 볼 때 나타나는 18대 국회의 보수화는 모든 정당의 보수화가 아니라 한나라당 기존 의원들의 보수화와 보수 의원들의 국회 영입에 따른 결과라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당 간 이념 차이는 더욱 커졌으며 여기에 수도권의 변화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지역은 여러 가지 형태로 시도해 보았지만 수도권 변수만을 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수도권 변수만 만들었다.

#### IV. 함축적 의미

18대 국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념적 변화 즉 보수화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18대 국회의 이념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의원들의 이념 변화를 정당별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18대 국회의 보수화 속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이념 변화를 17대 국회와 18대 국회 비교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18대 국회의 보수화가 국회 전체적인 이념 변화인지 아니면 특정 정당에 한정되어 나타난 현상인지 분석해 보았다. 또한 의원들을 지역별로 나누어 이념을 살펴봄으로써 이념적 변화가 나타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와 함께 의원의 이념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니면 안정적 모습을 보여주는지 17대 국회와 18대 국회 이념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의원들의 이념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편 의원들의 이념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의원들의 소속 정당, 지역, 의정경험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았고 이를 통해 18대 국회 이념을 설명함에 있어 17대 국회와 가지는 상이성 및 유사성을 살펴보았다.

18대 국회와 17대 국회 비교분석을 통해 18대 국회 보수화는 국회 전반적인 변화라기보다는 한나라당의 변화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18대 국회 한나라당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은 17대 국회의원들에 비해 모두 보수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수를 기준으로 살펴봐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장 눈에 띄는 발견은 서울 의원들의 보수화 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18대 국회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과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17대 국회 해당 지역 의원들에 비해 매우 보수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의원들의 이념이 안정적인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의원들의 신념 및 소신이 정치 환경에 의해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이념적 변화가 한나라당 의원들에만 발견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서는 발견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함께 발견할 수 있었다. 의원들의 이념 변화가 이념 변화 방향에 따라 특정 정당 의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인지 좀 더 시간을 갖고 분석되어야 한다. 한편 18대 국회의 보수화는 보수 성향 의원들의 입성과 함께 기존 의원들의 보수화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국회의원 및 국회 이념에 대한 연구는 국회의 정책결정 방향을 예견하고 국회 내 정당 간 갈등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를 통해 상임위원회 배정, 법안 표결 분석 등을 알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는 국회의 이념적 변화를 정당별, 지역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18대 국회 보수화가 어떠한 양상을 띠며 이루어졌는지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시차를 두고 측정된 의원들이 이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의원들의 이념은 어떠한 성격을 띠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아직 국회 및 국회의원 이념에 대한 연구 수행은 미진한 편이다. 무엇보다 이념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이념 측정이 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념을 통한 분석 및 시도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의 성격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알아보는 데 있어 이념은 무엇보다 기본적 자료와 의미를 제공하여 주기에 이념의 측정 및 분석에 대한 노력이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가상준. 2009a.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의 특징." 『한국정당학회보』 8-2, 67-95.
- \_\_\_\_\_. 2009b. "국회의원 투표 행태 분석: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15-2, 67-88.
- \_\_\_\_\_. 2007. "정치적 선호도와 당선 횟수로 본 17대 국회 상임위원회 특징." 『사회과학연구』 15-2, 236-279.
- 김민전. 2008. "의원의 정당충성도, 이념성, 그리고 재선 결과." 『의정연구』 14-2, 31-59.
- 이현우. 2005a. "한국과 미국의 국회의원 표결요인 비교, 자유무역협정 비준의 경우." 『국제정치논총』 45-3, 105-126.
- \_\_\_\_\_. 2005b. "'국회의원의 표결 요인분석: 정당, 이념 그리고 지역구.'" 『한국과 국제정치』 21-3, 187-218.
- 전진영. 2009. "여성 의원은 양성평등법안을 더 지지하는가?" 『의정연구』 15-2, 187-217.
- \_\_\_\_\_. 2006. "국회의원의 갈등적 투표행태 분석: 제16대 국회 전자표결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0-1, 47-70.
- Abramowitz, Alan I. and Kyle L. Saunders. 1998. "Ideological Realignment in the U.S.

- Electorate." *Journal of Politics* 60-3, 634-652.
- Aldrich, John H. 1995. *Why Parties?: The Origin and Transformation of Political Parties in Americ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artels, Larry. M. 2000. "Partisanship and Voting Behavior, 1952-1996."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1, 35-50.
- Binder, Sarah A. 1999. "The Dynamics of Legislative Gridlock, 1947-96."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3, 519-533.
- Binder, Sarah A., Eric D. Lawrence, Forrest Maltzman. 1999. "Uncovering the Hidden Effect of Party Uncovering the Hidden Effect of Party." *Journal of Politics* 61-3, 815-831.
- Black, Earl. 1998. "The Newest Southern Politics." *Journal of Politics* 60-3, 591-612.
- Burden, Barry C. 2004. "Candidate Positioning in US Congressional Election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 211-227.
- Covington, Cary R. and Andrew A. Bagen. 2004. "Comparing Floor-Dominated and Party-Dominated Explanations of Policy Change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ournal of Politics* 66-4, 1069-1088.
- Cox, Gary W., and Mathew D. McCubbins. 1993. *Legislative Leviathan: Party Government in the Hous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x, Gary W., and Keith T. Poole. 2002. "On Measuring Partisanship in Roll-Call Voting: The U. S. House of Representatives, 1877-1999."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3, 477-489.
- Fleisher, Richard and John R. Bond. 2004. "The Shrinking Middle in the US Congres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 429-451.
- Fleisher, Richard and John R. Bond. 2000a. "Congress and the President in a partisan Era." In. *Polarized Politics: Congress and the President in a Partisan Era*. Washington D.C.: CQ Press.
- Fleisher, Richard and John R. Bond. 2000b. "Polarized Politics: Does it Matter?" In. *Polarized Politics: Congress and the President in a Partisan Era*. Washington D.C.: CQ Press.
- Gilligan, Thomas W. and Keith Krehbiel. 1990. "Organization of Informative Committees by a Rational Legislatur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 531-564.
- Hall, Richard L. and Bernard Grofman. 1990. "The Committee Assignment Process and the Conditional Nature of Committee Bia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 1149-1166.
- Hetherington, Marc J. 2001. "Resurgent Mass Partisanship: "The Role of Elite Polariz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3, 619-631.

- Hill, Kevin A. and Nicol C. Rae 2000. "What Happened to the Democrats in the South?: US House Elections, 1992-1996." *Party Politics* 6-1, 5-22.
- Hurwitz, Mark S., Roger J. Moiles, and David W. Rohde. 2001. "Distributive and Partisan Issues in Agriculture Policy in the 104th Hous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4, 911-922.
- Jacobson, Gary C. 1996. "The 1994 House Elections In Perspectiv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1-2, 203-223.
- Jackson, John E. and David C. King. 1989. "Public Goods, Private Interests, and Represent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4, 1143-1164.
- Jackson, John E. and John W. Kingdon 1992. "Ideology, Interest Group Scores, and Legislative Vo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6-3, 805-823.
- Jones, David R. 2001. "Party Polarization and Legislative Gridlock."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4-1, 125-141.
- Kalt, Joseph P. and Mark A. Zupan. 1984. "Capture and Ideology in the Economic theory of Politics." *American Economic Review* 74-3, 279-300.
- Kalt, Joseph P. and Mark A. Zupan. 1990. "The Apparent Ideological Behavior of Legislators: Testing for Principal-Agent Slack in Political Institution." *Journal of Law & Economics* 33, 103-131.
- Kingdon, John W. 1989. *Congressmen's Voting Decisions*. 3rd ed.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rehbiel, Keith. 1990. "Are Congressional Committees Composed of Preference Outlier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 149-163.
- Krehbiel, Keith. 1991. *Information and Legislative Organizat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rehbiel, Keith. 1995. "Cosponsors and Wafflers from A to Z."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9-4, 906-923.
- Krehbiel, Keith. 1998. *Pivotal Politics: A Theory of U.S. Lawmak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Layman, Geoffrey C. and Thomas M. Carsey. 2002. "Party Polarization and Conflict Extension in the American Electorat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4, 786-802.
- Levitt, Steven D. 1996. "How Do Senators Vote? Disentangling the Role of Voter Preference, Party Affiliation, and Senator Ideology." *American Economic Review* 86-3, 425-441.
- Owens, John E. 1997. "The Return of Party Government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entral Leadership-Committee Relations in the 104th Congres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7-2, 247-272.

Roberts, Jason M. and Steven S. Smith. 2003. "Procedural Contexts, Party Strategy, and Conditional Party Voting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71-2000."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7-2, 305-317.

Rohde, David W. 1991. *Parties and Leaders in the Postreform Hous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nyder, James M. Jr., and Tim Groseclose. 2001. "Estimating Party Influence on Roll Call Voting: Regression Coefficients versus Classification Succ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3, 689-698.

Whitby, Kenny J. and Franklin d. Gilliam, Jr. 1991. "A Longitudinal Analysis of Competing Explanations for the Transformation of Southern Congressional Politics." *Journal of Politics* 53-2, 504-518.

ABSTRACT

---

##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Sangjoon Ka | Dankook University

The study aims at comparing partisan ideology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with the 17th National Assembly's to explore conservatism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In particular, it is of interest to see ideologic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ssemblies in terms of region, legislators' experiences, and the rule of candidate selection. Likewis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test whether legislator's ideology is stable or changeable by examining reelected legislators whose ideology have been measured twice.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the Grand National Party (GNP) solely contributes to ideological changes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Also, ideological changes of the reelected GNP members play a significant role in strengthening GNP's conservatism. The results interestingly find that changes of Democratic Party legislators' ideology in the Metropolitan area are also notable. Ideological approaches to legislators and Congress provides an opportunity to foresee the direction of policy-making and the conflictual level between parties in Congress; however, the study on ideology is not still sufficient. In researching characteristics of Congress and legislators' activities, ideology provides basic and meaningful data. Therefore, we should make efforts to measure and analyze ideology of legislators more precisely.

**Keywords:** 18th National Assembly, 17th National Assembly, ideology, Conservatism, Grand National Party, Democratic Party